

주의 세례 축일

기도서 239면 (B해)  
 제1독서 : 이 사 42, 1-4. 6-7  
 제2독서 : 사 도 10, 34-38  
 복 음 : 마 르 1, 7b-11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예수님의 세례의 뜻

김요안 신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에피파니아(공현)이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나오므로써 메시아 시대가 계시되었기에 그렇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세상이 다 아는 바대로 죄인이 아니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으니 그것은 인류는 너나없이 새로운 인간-회개하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고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참된 사명 즉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마태오 복음 3장 14절 이하를 보면 세례자 요한이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하자는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전한 의로움-성부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실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세례를 받으므로써 세상안에 인류와 동참하게 되었으며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수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성부 하느님의 뜻을 오롯이 받들고저 죄인처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그 겸손의 미덕은 오늘 마르코 복음 1장 11절에서 곧바로 보상받고 있으니-"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우리는 오늘 주의 세례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세례성사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고(갈라 3,27)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안에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 신자이어야 한다.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또한 언제까지나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겸손한 양들이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하겠다.

(덕진본당 보좌신부)



## 서로 돕고 나누는

-증거의 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3세기를 맞는 올해를 「증거의 해」로 정하고, 이 땅의 순교 신열들은 "양반과 상민, 부자와 빈자,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받으며 형제적 사랑의 유대를 쌓아나감"(복음적 삶의 구현)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주교단 사무교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교서는 교회내의 각 계층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다.

모든 교우들은 개인주의적 신앙 자세를 탈피하고 이웃 형제와의 유대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지위, 생활수준, 사고방식, 계층 등의 모든 격차를 극복하고 만민의 아버지이신 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웃의 걱정들을 내 걱정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돕고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성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닮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 중에 가장 고통받는 이, 잊혀진 이, 가난한 이, 무시당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해야 한다. 교황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안에는 산업근로자, 농어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다. 주 예수께서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더욱 애쓰신 것처럼 사목활동도 보잘 것 없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수도자는 가난하신 예수를 몸으로 증거해야 한다. 자신을 낮추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과 생활로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수도자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요 영예이다.

주께서도 마태오 복음사가를 통해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7,21)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증거의 해」를 한달 구호로만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 숲 정 이 산책



# 그리스도교 일치에 위한 기도

1월 18일~25일은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 주간입니다.

그리스도교 일치에 위한 기도주간을 맞이하면서 교회 일치에 대한 가톨릭 원칙과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교의 일치에 창설자이신 그리스도의 원의에 기원합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에 비교하여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를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요한 17, 20-21). 실상,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를 설립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도들로부터 계승하여 오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즉 베드로의 후계자를 으뜸으로 모시는 주교들의 충실한 복음전파와 성사집행과 사랑의 통치로써 성신의 활동 속에서, 당신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한 신앙의 교백과 전례의 공동 집전과 하느님 가족의 형제적 화목 안에서 당신 백성의 일치를 완성하고 계십니다”(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2항).

가톨릭 신도들은 일치운동에 임하기 위해서 우선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적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교회의 지도층-에콘대 교황 아드리아노 6세(1522-1523)-은 그리스도교계의 분열의 책임을 가톨릭 교회도 개신교와 함께 나누어 갖는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일치 교령에서도 표명되고 있습니다.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3항) 갈라진 형제들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하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교리와 생활을 올바르게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그리스도교계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교 일치에 쉽게 이룩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장애가 놓여 있습니다. 더우기 교회 분열이 일어난 지 300여 년이 지난 오늘 날에 있어서 일치의 성취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 일치에 필요한 그리스도교인의 자세는 내적 회심으로서 자아를 포기한 그리스도교적 자유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어떠한 개인적 욕심이나 교파적 편견에 집착하지 않고 유일한 종교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일치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 □교리해설

### 주의 세례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가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마태 3, 14-15), 또 결손되이 자신을 죄인들의 대열에 들게 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르단 강에서 받은 세례는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받을 세례를 예고하며 후에 예수께서는 두번 자기 죽음을 두고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신다(마태 20, 22; 루카 12, 50).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자신을 바쳐 비천한 종이 되고,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셨다.

세례자 요한에게서 받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시므로써 절정에 이른다. 영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이사 11, 2; 42, 1; 61, 1), 메시아적 사명을 수여 받았다는 것을 표시함과 동시에 교회와 교회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이(에페 5, 25-32; 디도 3, 5-7) 성신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사도 1, 5; 11, 16) 성신 강림을 예고한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자의식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과 결합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 하느님의 양자가 되리라는 것(갈라 4, 6)을 미리 알려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에서 운명하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교 일치에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영적 교회 일치운동을 장려하였습니다(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8항). 이러한 그리스도교 일치에 위한 기도와 일치주간의 신실행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경건한 가톨릭 교회인들이 실천하여 왔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교 일치도 기도없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 신도들은 일치주간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영신적 성숙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숙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대해 원하시는 일치를 깨닫고 다른 그리스도교 형제들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분열되어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치는 성취될 것입니다.

(이상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일치 위원회가 제공한 강론을 요약한 것입니다.)

### ♣ 숲정이 후보 원고 모집

교구 홍보국에서는 교우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리 최윤경 미용실·미용학원

학원생 주·야간 수시모집  
신부화장, 드레스, 페백복 제공  
미국, 불란서를 비롯 구라파 여러나라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원장 최윤경(유리안나) 직접 지도합니다.

☎ 이리 2-8653 3-2496

### 약에 관해서 알고저 할 때

## 전주 시민약국

중앙성당 뒷편

☎ 4-0009 3-3338

### □베소라 신약 복음 강해 개설

베소라 성서 연구원(담당-김 정원 신부)에서는 신약 복음 강해를 아래와 같이 개설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오전반 : 10시~12시      오후반 : 7시~9시  
 장소 : 가톨릭 센터 3층 강의실      일시 : 1월 21일(매주 월요일)  
 강사 : 김 정원 신부      기타 문의 : 베소라 성서 연구원(전화 72-4978)

### □대학생 주일 모임 안내

세계 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Pax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연구하는 대학인으로서 신앙을 생활화하며, 나아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바탕을 위한 대학생 주일이 매월 마지막 주일로 선정되었다.

첫모임 일시 : 1985. 1. 27 오후 2시~6시  
 장소 : 가톨릭 센터      대상 : 교구내 전 대학생  
 프로그램 : 한마당(땅풀이)과 함께 뒷풀이, 미사, 임시총회(대학생 연합회)

### □제 3기 성서 40주간 모집

신구약 성서 전체를 40주 내에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는 성서 40주간 3기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일시 : 2월 7일(목요일 오전 10시) 개강  
 장소 : 가톨릭 센터      회비 : 2천원  
 접수 : 교육국(전화 00041~3) ※ 가톨릭 센터 안내실에 입회서 있음.

### ◎제 2기 성서 40주간 졸업식

일시 : 1월 31일(목) 오전 10시30분  
 ※ 졸업미사, 성경카드, 가훈, 성 바울로 사도의 전도 여행지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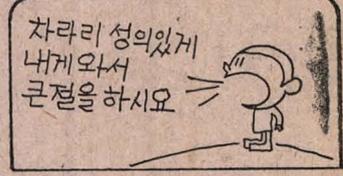
## 천 상 의 마 음

이 라우렌시아

싸늘한 초겨울 저녁미사에 가노라니 앞에 두 청년이 걸어가는 데 한사람의 어깨에는 세살쯤 보이는 사내아가가 얹혀 아빠의 치켜올린 양손과 마주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간다. 요즘들어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해서 재미있어 보였고 사랑스런 모습이였다. 뒤따라가며 지켜보노라니 그들은 약간의 걸지자 걸음걸이가 아닌가. 분명 슬취한 그들이였다. 발음도 정확치 않은 말이 오간다. 순간 어머! 어찌면! 나는 불안했다. 저 아이가 떨어지면 어쩌나 마음조이며 아슬아슬한 생각마저 들었다. 바싹 다가서서 뒤따라갔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그 아이는 재미있는 듯 웃으며 아빠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한다. "좋~지 응, 안출지 응. 호떡 사줄게." 흐린 말씨에 아빠는 더욱 힘있게 아가의 손을 잡아준 모양이다. 어린 아이는 조금도 불안해 하지 않았다. 중심이 흔들리는 어둠속에 걸음걸이가 금방 떨어뜨릴 것만 같은 불안한 나의 마음이었지만 아이는 아빠의 슬취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스럽게 마냥 좋아하는 모습이였다. 오직 아빠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심이였기에 아무런 불안함없이 편안하게 좋아했으리라.

나는 그 아이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다. "너희가 천국에 들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마태 18,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주어진다고 생각되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승화될 때 행복은 주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리 창인동 본당)

## 요심이(597) 김병오



### 신규 직원 채용 공고

당 조합은 의욕적이고 성실한 신규직원을 찾습니다.

- 모집부문 및 자격
  - ①모집부문: 일반(사무)직 0명
  - ②자격: \*만30세 미만인 남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 1통(사진 2매)
  -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③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 ④주민등록증·초본 각 1통
- 서류제출기간 및 접수처
  - ①기간: 85. 1. 7~85. 1. 17
  - ②접수처: 당조합 총무과
- 전형방법
  - ①필기시험(상식, 논문, 주관)
  - ②면접 ③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조합 총무과(00191~4)에 문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않음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종두

###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 일신 기업 석재

※건축석재 가공 및 시공  
 ※상석·석판  
 (대리석, 기타석재)  
 대표 김종의(야고버)  
 (합월천주교회 사도회장)  
 전화 공장 (0653)05000  
 자택 (0653)00049

### 85학년도 원아모집

\*유아반(만 3~4세) : 20명  
 \*유치반(만 5~6세) : 40명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통학버스 운행 ※ 현재 원서 접수중  
 미술교사 초빙-1명  
**관인 해돋이 미술교육학원**  
 효자동 우진아파트 입구 ☎ (75) 4374  
 원장 김순주(베로니카)

(4) **순 정 이**



1. 오송회 관련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 14일 저녁 7시30분, 장소-군산 로동동성당
2. 사복방문: 17일-교구청·센타·농장
3. 전주지구 제8차 M·E 주말강습: 18일~20일, 장소-내장산, 18일 오후 7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바람
4. 1월 꼬미씨움 회의: 20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꾸리아간부 및 직속Pr. 간부
5. 성직자 어머니회: 21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센타 ※ 주교님을 모시고 회합을 가결
6. 공동체 묵상회(M·B·W): 23일~26일, 장소-가톨릭 센타, 회비-2만5천원, 접수일-19일까지, 접수처-교육국
7. 고·대·일반 성소자 피정: 24일 오후 4시~25일, 장소-가톨릭 센타, 대상-고·대·일반 성소에 관심있는 남자, 참가비-4천원
8. 1월 은혜의 밤 및 열야기도회: 26일 오후 9시~27일 오전 6시, 장소-효자동성당, 대상-모든 교우들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①**

**(중앙)**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 ☆ 금암성당 축성식 무사히 마쳤습니다: 성원 감사드립니다
1. 꾸리아: 금일 오후 2시
  2. 각 신심단체: 85년 사업계획서 제출 바람
  3. 성모회: 금일 공식미사 후
  4. 종합생회: 정기총회 5. 병자봉성체: 15일
  6. 남성 21차 꾸르셀로: 17일~20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새성전 비품 봉헌하여 축복받았습니다
- 비품대용: 행렬. 십자가-9만원, 주수병-2만3천원, 옷대-4개×2만5천원, 제대용 십자가-5만원, 성합 특대-15만원, 성합대-13만원, 향로세트-3만원, 촛불끄는 것-2만원, 성수그릇세트-2만원, 미사종-5만원, 성유통-1만원
- 지난주 봉헌금: 1,082,800원    교무금: 1,377,5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 용 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이 성 유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오전 9시
2. 어머니성가대 정기총회: 15일 어머니미사 후
3. 분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4. 교무금 완납합시다: 84년도 교무금을 못내신 분들  
 속히 완납하시고, 신년도 교무금 선입합시다
5. M·E 감습회 참가: 임선우 부부·안남근 부부·채우  
 연 부부, 축하드립니다
6. 왕정리공소 특별교리: 7일~14일까지
7. 금주전례: 제1조, 차주전례: 제2조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 봉 희  
 전화 수녀(7)1222    보좌 신부 임 성 안  
 사.우(7)6259    사도 회장 양 묘 일

1. 오늘의 모임: 중·고등학교 정기총회-10시(2층 회의실), L.M. 꾸리아-오후 2시(유치원)
  2. 주일학교 어린이 피정: 6학년 대상, 22~23일, 센타
  3. 예비자교리 개강: 오늘부터  
 (주임) 공식미사 후-부녀·일반, (화) 오전 9시-할머니·10시-주부, (수) 오후 7시-젊은이(남·여), (목) 오후 7시-직장인(성인), (금) 오후 7시-가정주부, (토) 오후 3시-중·고학생
  4. 다음주 모임안내: 반석회, 청년연합회
  5. 금주 분당청소: 성심부녀회(19일 오후 3시)
  6. 85년도 교무금: 자진 선입 바람, 1월중 한가정도 빠지지 맙시다 ※ 84년도 교무금은 속히 완납바랍니다
  7. 차주전례복사: 반석회
- 지난주 봉헌금: 613,260원    교무금: 256,500원

**(복자)**

사.재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3. 분당 피정: 15일 오후 1시~5시, 강사-부제님들
4. 엘리사벳 방직기 삼회 협제회: 19일 오후 2시
5. 자선의 날 헌금: 103,000원  
 화산동 이순님-73,000원, 교도소-30,000원
6. 예비자 교리: 오늘 공식미사 후, 김수녀님 지도
7. 84년도 결산(예산액-37,970,000)  
 교무금 31,200,000-예산 27,810,140원,  
 주일금 4,320,000-7,118,777원, 미수교무금 600,000-589,900원, 이자 50,000-109,807원, 기타 수입 100,000-264,788원, 이월금 1,500,000-1,941,869원  
 신생바 200,000, 총수입-37,835,281원,

- 총지출-35,341,270원, 잔액-2,494,011(85년 이월)
8. 온풍기 신입누계: 1,650,000원, 온풍기 대금지불일-1월20일, 19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금주 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 모친 차주 담당: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10.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간 ②장영자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강기연 ②김재식
- 지난주 봉헌금: 206,760원    교무금: 610,050원

**(서학동)**

신부 ②8307번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반장님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성심회-오늘 오후 2시, 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울프레아-25일 저녁 7시
  2. M·B·W 교육: 21일~24일, 가톨릭 센타에서 회비-25,000원(1만원 분당에서 지원)  
 ※회합자는 사제관 사무실에 20명 선착순
  3. 신념도 교무금 선입: 아직도 못하신 분 선입 바람
  4. 유아세례 및 병자방문: 매월 셋째주 목요일 미사후 미리 신청 바람
  5. 차주전례: 해설-김삼곤·교정수 독서-①함본권 ②차상열, 기도-요나회
- 지난주 봉헌금: 431,000원    교무금: 309,000원

**(순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 중 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 수 결

1. 레지오 연총친목회: 오늘 꾸리아 회합후
  2.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자선: 구역장님은 금주내로 불우한 이웃 추천 바람
  4. 교무금: 신년도 교무금 선입 및 84년도 교무금 완납
  5. 온풍기성금: 부녀회-30만원, 동양아파트 익명-5만원, 송용호-1만원, 익명-1만6천2백원, 이안나-5천원
  6.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기도-강 삼, 허옥순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기도-김남근, 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280,930원    교무금: 328,500원  
 구유현금: 30,8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전화 사.우 ②3222    보좌 신부 정 영 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 양 현

1. 사도회·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1시30분
  2. 성화회·꼬미씨움: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오전 11시, 수요일-오후 7시30분, 금요일-오전 10시30분, 토요일-4시30분(중·고생)
  4. 청년등반대회: 21일 오전 9시, 모악산, 회비-1천원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원 ②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유기동 ②백종흠  
 저녁미사: 해설-교육회, 독서-①최종만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861,350원    교무금: 1,068,500원

**(홍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 교 성  
 사.우 2-0915

1. 주부 성서대학: 내용-신·구약성서 전체, 기간-2년 모집인원-50명(선착순)  
 강의시간-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신청기간-1월 13일~15일(사제관에서)
  2. 전일자 환영식: 27일 공식미사 후
  3. 회의: 금주-클라라회, 차주-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411,155원    교무금: 452,500원